

팬데믹 기간 중 창업 도전에 대한 연구

김재호*

*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e-mail:kais@jaehokim@chungwoon.ac.kr

Research on the challenges of starting a busines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s

Jae-Ho Kim

*Dept. of Trade & Logistics,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모임과 이동의 제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냈으며, 관광 등 국내외 여행업 등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 각 나라의 회복탄력성을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상황을 거의 유일하게 이어가고 있다. 반면 독일 및 우리나라는 좀처럼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폐업과 가게대출이 큰 문제로 남아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좀처럼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 중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창업 도전이 더 늘어난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중위소득도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창업 도전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 창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 실현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며, 한국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창업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가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팬데믹(Pandemic)은 그리스어인 '판데모스 (pandemos)'에서 따온 말로 데모스(deoms)는 인구 (population)를 의미하고, 판(pan)은 모두(everyone)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면역을 갖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되고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고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도 2023년 5월 11일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19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엔데믹(풍토병)이 돼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전염의 우려로 인해 각종 모임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었다.

지난 2022년 G20에서 팬데믹이 보건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특히, 경제적 영향의 경우 2024년까지 약 14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1]

그러나 온라인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업 영역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통적인 골목 상권은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외식업종에서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배달전문점이 활성화되었고 배달업도 호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경제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팬데믹 이후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났고,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경제의 회복탄력이란 충격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붕괴하였을 때 이에 대한 회복 능력이다. 이런 경우 파괴적 혁신 등의 과정을 통해 창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정부는 22년 말부터 창업과 수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금리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문제와 인플레이 등으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글로벌 창업시장에서 발생한 현상들을 분석하여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본질을 탐색하고 창

업정책과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미국의 창업 현황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창업 도전자 비율이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2023년 10월, IRS는 47만 3천 건의 신규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2019년 10월보다 41% 증가한 수치이며,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간 신규 사업 신청 중 실제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큰 사례는 15만 4천 건으로 세계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였던 10만 건을 훨씬 상회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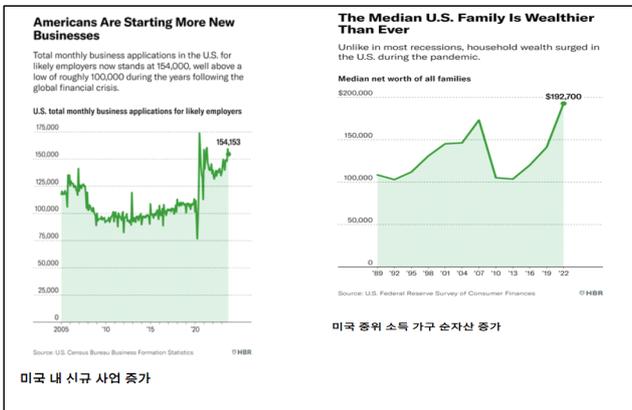
따라서 미국 통계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7.0%에서 2022년 7.7%로 증가했으며, 2021년 실제 신규 고용 기업 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미국의 사업체 개입 수는 2029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35만 6천 개의 사업장이 더 문을 연 것이다. 벨기에와 프랑스가 22%의 창업을 증가로 근접했지만, 독일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이탈리아는 팬데믹 이전보다 창업이 더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창업하거나 창업 과정에 있는 사람 중에는 소수 인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가 각각 35%, 와 27%로 집계됐고 백인은 15%였다.

이러한 창업 도전 추이는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적자의 증가와 재난 지원금 지급, 실업 수당 확대, 소규모 창업자 대출 등 정부 주도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반면 2018년 2.9%였던 폐업률이 2022년 5.2%로 치솟았다는 점에서 창업이 장기적 경영으로 온전히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미국의 창업 현황 및 중위소득현황

미국의 경우 창업 도전이 늘어남과 더불어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창업률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창업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며, 언론과 연구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 한국의 팬데믹 창업 현황

창업기업 동향을 통해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창업기업이 줄어들었으나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체적으로 창업기업이 2019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에서는 창업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은 무려 150만여 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 창업기업이 148만4천667개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정보통신업(21.2%)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2%) 창업이 늘었지만 대면 업종인 교육서비스업(-8.9%)과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3.5%)은 줄었다.

[표 1] 한국의 창업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1,484,667	1,417,973	1,317,4719	1,238,617
	(15.5)	(△4.5)	(△7.1)	(△6.0)
부동산업 제외	1,046,814	1,100,589	1,111,718	1,111,932
	(4.1)	(5.1)	(0.1)	(0.02)

2023년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6.0%(78,862개) 감소한 123만 8,617개로 집계되었다. 특히, '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대비 79,076개(-38.4%)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연간 기술기반 창업은 221,436개로 전년 대비 3.5%(7,980개)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5%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2년 중소기업부가 발표한 창업 동향에 따르면 연간 창업 기업(개) : ('18) 1,344,366 → ('19) 1,285,259 → ('20) 1,484,667 → ('21) 1,417,973 → ('22) 1,317,479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업을 포함한 결과이며 18년 수준에는 육박하지만 20년, 21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통계를 살펴보면 18) 977,405 → ('19) 1,005,462 → ('20) 1,046,814 → ('21) 1,100,589 → ('22) 1,111,718로 나타났다.

2.2 기술창업 현황

기술창업이란 기술창업'이란 특정 분야의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술창업은 고성능 장비 도입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업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8년 이후 기술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4]

[표 2] 한국의 기술창업 현황

< 기술기반 창업 수 >

(단위 : 개,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전체	1,190,177 (100.0)	1,256,267 (100.0)	1,344,366 (100.0)	1,285,259 (100.0)	1,484,667 (100.0)	1,417,973 (100.0)	1,317,479 (100.0)	△100,494 (△7.1)
기술기반 (비중)	190,674 (16.0)	198,911 (15.8)	212,237 (15.8)	220,607 (17.2)	228,949 (15.4)	239,620 (16.9)	229,416 (17.4)	△10,204 (△4.3)

2022년 기술기반 창업*은 22.9만 개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24만 개)을 기록한 기저효과와 대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전체 창업 감소율(7.1%)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0.5%p 상승한 1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절대적인 창업기업 수도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팬데믹 기간 중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창업 열기를 조명해 보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회복탄력성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세계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제정치적 패권과도 관계가 있지만 미국기

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려웠을 일이다.

비교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영국에서도 비슷한 창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반면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독일은 창업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상공인 창업은 부동산의 열풍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 창업을 포함하면 줄어들었다가 22년도에 이르러 18년 수준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기업의 수가 2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창업의 경우에도 2016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 이후 2020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술기반의 비중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탄력성이 왜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2024)에 의하면 미국의 이러한 결과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팬데믹 기간 중 미국 가정의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 요인이다. 온라인의 발달은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낮추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실현해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창업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창업 지원제도는 위기의 순간에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기업가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경제 양상을 보이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Kenan Fikri and Daniel Newman(2024), How the Pandemic Rebooted Entrepreneurship in the U.S., Harvard Business Review
- [2] 안소현.(2022).코로나19 이후 주요 업종별 창업 추이의 변화와 시사점.월간 KIET 산업경제,289(0),7-17.
- [3]<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1518>
- [4] 22년 연간창업동향 (2022), 중소기업부,
- [5] <https://www.bbc.com/korean/news-63252614>